

‘수도권서 1시간50분’ 호남고속철 무안공항역 조만간 착공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철 정차 접근성·편리성 높이기 위해 공항 지하에 설치 수도권 1시간50분·경남권 2시간대 이동 가능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고막원~무안국제공항~목포 간 신설노선 추진에 따라 무안국제공항 고속철도 정차역 설치공사가 본격 착공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고속철도 정차역은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철도가 정차하고, 여객청사로 접근성과 이용객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 지하에 설치한다.

특히 입체 동선을 통해 지역 랜드마크로서 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국가철도공단과 관련 지자체(나주, 무안, 함평)로 구성된 지원협의체를 운영해 토지보상, 민원 해결 등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호남고속철도 개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3년 개통될 목포~부산 간 남해안 고속철도 개통시기에 맞춰 이 노선이 무안국제공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선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무안

국제공항까지 1시간50분대, 부산·경남권에서도 당초 6시간30분에서 4시간이 단축된 2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의 이용범위가 수도권은 물론 남해안권까지 확대돼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고속철도는 2004년 호남선 복선 및 전철화, 2015년 광주송정역까지 고속철도를 개통한 후 공항 경유 문제로 노선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17년 11월 무안국제공항 경유가 확정되면서 그동안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가 추진돼 왔으나, 완전 개통 시기는 2025년까지 미뤄진 상황이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앞으로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이 설치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이 전남만의 공항이 아닌 대한민국 대표 관문공항 역할을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역 조감도.

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대통령 “사면불가” 이낙연, 텃밭 광주서 돌파구찾기 안간힘

‘노무현 국밥집’ 점심먹고 5·18묘지 찾아 민심달래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전통시장의 국밥집에서 점심을 먹고있다. 이 국밥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방문해 유명해진 곳이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텃밭인 광주에서 돌파구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

니다”며 사면론에 선을 긋자, 이 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히고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으로 내려와 민심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연초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

했으나 호남과 당원들의 반발을 사며 ‘가시광선’ 처지였다.

이 대표는 광주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전주교 광주대학교장인 김희중 주교를 예방하기로 했다. 민심달래기 측면이 강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민주당 당사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 회견을 지켜 본 뒤 곧바로 KTX를 타고 광주에 도착, 첫 방문지인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났다. 오후 1시 30분경 시장을 돌며 상인 3~4명과 손을 잡고 “힘을 내시라”고 격려했다.

이어 ‘노무현 국밥집’으로 불리는 양동시장 H분식에서 모듬국밥으로 점심을 먹었다. 자리에는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상인 2명이 동석했다. ‘노무현 국밥집’은 200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노무현 후보가 국밥을 먹은 곳이다. 사면론으로 궁지에 몰린 이 대표가 이 국밥집을 찾은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 처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국밥을 비운 이 대표는 상인들에게 목례를 한 뒤 5·18 묘지로 향했다.

신봉우기자

“여수시민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지급”

권오봉 시장 “시민 교통 지속” 4인 가구 100만 원 선불카드도

권오봉 여수시장은 전 시민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비대면 영상브리핑을 통해 국가 산단의 대규모 투자가 올해 들어 점차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또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4분기가 시민들께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어 생활 불편과 영업손실을 감수하며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희생에 대해 보답하고,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에 따르면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시민 1인당 25만 원으로 720억 원

규모다. 2021년 1월 18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이 대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카드도 지급하고, 올해 8월 말까지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카드사용의 불편함을 감안해 65세 이상 어르신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권 시장은 “소요 재원은 도로 등 계획한 사업을 미루고, 시의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차입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고비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추석과 같이 귀성과 역귀성을 자제하는 이동 멈춤 운동에 시민 여러분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국가 산단의 대규모 신·증설로 많은 노동인력이 유입되고, 관광객은 전년 대비 65%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년여간 이어진 사회적거리두기, 외출자제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실제로 지난해 11월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던 지역경제가 3차 대유행이 나타난 12월 전년 동월대비 카드매출은 10.5%, 관광객은 55.8%가 급락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